

#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경과와 과제\*

최원회\*\*

## The Progress and Task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s 10 Years of Establishment\*

Wonho Choi\*\*

**요약 :** 한국지리학회(이하, '학회'로 칭함)가 2011년에 출범하여 2021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학회의 도약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학회 창립 10년의 경과를 개관하고, 학회의 과제를 모색했다. 학회 창립 10년의 경과는 학회의 창립 과정, 역대 임원의 내역, 회원수의 추이, 학술활동의 성과 등을 중심으로 개관했다. 또한, 학회의 과제는 학술활동, 사회봉사 등의 측면에서 모색했다. 그 결과, 학회는 지난 10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종합지리학회로서의 기반을 갖추는데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연의 학술활동과 사회봉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간주된다. 학회가 새로운 1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지리학회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주요어 :**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 경과, 과제

**Abstract :**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was launched in 2011 and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in 2021. Therefore, in order to use the upcoming 10 years as an opportunity for the leap forward of the Association, the progress of the Association's 10 years of establishment was outlined and the tasks of the Association were sought. The progress of the Association's 10 years of establishment was outlined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Association, the details of past executives, the trend of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In addition, the tasks of the Association were sought in terms of academic activities and community service. As a result, the Association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its foundation as a comprehensive geographic association despite many difficulties over the past decade, and based on this, it is considered to have carried out its original academic activities and social services relatively successfully. We hope that the Association will grow significantly in the new decade as a comprehensive geographic associat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Key Words :**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10 years of establishment, Progress, Tasks

### I. 서론

한국지리학회(韓國地理學會)가 2011년에 출범하여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학회 창립 10년의 경과(經過)'를 개관하고, '학회의 과제(課題)'를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회 창립 10년의 경과는 한국지리학회의 창립 과정, 역대 임원의 내역 및 회원수 추이, 학술활동의 성과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

\*본고는 2021년 12월 4일에 개최된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와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행한 기초강연의 원고를 수정·가필한 것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고, 학회의 과제는 학술활동, 사회봉사 등의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 II.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경과

### 1. 한국지리학회의 창립 과정

한국지리학회의 창립 과정은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 1)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1) 발기인 대회 개최

##### ① 한국지리학회 창립 의결

2011년 6월 18일에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운초우선교육관 204호실에서 가칭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공동대표 10명을 비롯해서 발기인 225명이 모여서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의 사회로 가칭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 공동대표 10명은 강철성 교수(충북대학교), 김창환 교수(강원대학교), 박승필 교수(전남대학교),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유흥식 교수(관동대학교), 이준선 교수(관동대학교), 장우석 교장(서울청담고등학교), 조성욱 교수, 최원희 교수(공주대학교) 및 홍기대 교수(광주교육대학교)였다(한국지리학회, 2012c:153; 그림 1, 표 1).

발기인 대회에서는 발기인 대표 최원희 교수의 인사말과 김종욱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와 강선보 교수(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발기인 대표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경과보고에 이어, 발기인 공동대표와 발기인 일동은 가칭 ‘한국지리학회’의 창립을 의결하였다(한국지리학회, 2012c:153).

###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일시 • 2011년 6월 18일(토) 오후 3시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4호



그림 1.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a:앞표지.

##### (2) 창립총회 개최

##### ① 창립 선언

2011년 6월 18일에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운초우선교육관에서 열린 가칭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에서 가칭 ‘한국지리학회’의 창립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의거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가칭 ‘한국지리학회’ 창립총회가 열렸다(한국지리학회, 2012c:154).<sup>1)</sup>

가칭 ‘한국지리학회’ 창립총회는 안재섭 교수(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사회로 열렸다. 이 창립총회에서는 우선 학회 창립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 창립선언문에는 학회 창립의 배경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한국지리학회, 2011b:3).

표 1.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공동대표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강철성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이준선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김창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장우석	서울청담고등학교 교장
박승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조성욱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박철웅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최원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유흥식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홍기대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c:6.

“한국의 지리학은 과거부터 지극히 보수적이고 관에 박한 관점과 설명이 지배하고 있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지 못하고, 예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알지 못하고, 종합과 통섭이라는 지리학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지리학의 모습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지리가 아사 직 전임에도 불구하고 모학문 지리학과는 무관한 남의 집일 처럼 치부되고, 열정을 갖춘 실행보다는 구두선과 고답적인 비평의 수준에 머물러는 풍토는 여전합니다.”

위와 같은 학회 창립의 배경에서 학회 창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1b:4).

“한국지리학회는 예코 시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글로벌 지식기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리학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강한 미래를 가져올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학회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1b:4-5).

“한국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리학의 대중화 사업/ 지역 및 도시 개발, 환경정책 등 지리학에 바탕한 다양한 국가정책 대안 제시/ 초, 중, 고, 대학의 다양한 지리학 및 지리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연구의 특성화/ 학문지리와 학교지리의 연계 강화와 네트워크의 구축”

**② 학회정관 확정, 회장·감사 선출 및 학회 윤리규정 제정**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언에 이어 한국지리학회정관이 심의·확정되었는데(한국지리학회, 2012c:154), 학회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5장 재산 및 회계의 총 5개 장과 총 28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학회정관은 2011년 6월 18일, 2011년 12월 10일, 2012년 5월 12일 및 2012년 12월 15일에 각각 개정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d:166-168).

그리고, 창립총회에서는 학회정관에 의거하여 임기 1년(2011. 6. 18.-2012. 6. 17.)의 초대 학회 회장으로 최원희 교수를 선출하고, 이와 더불어 임기 2년(2011. 6.

18.-2013. 6. 17.)의 감사 2명으로 권종원 교육연구사(교육과학기술부)와 김영호 교수(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선출하였다(한국지리학회, 2012c:154).

이외에, 창립총회에서 한국지리학회 윤리규정이 제정되었다. 학회 윤리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논문 관리규정,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의 총 3개 장과 총 12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c:169-171).

**2)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1) 초대 임원 구성 확정**

2011년 7월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초대 학회 임원 구성이 확정되었는데, 창립총회에서 기선출된 회장(최원희 교수) 이외에 부회장에 김창환 교수, 박철웅 교수, 장우석 교장, 조성욱 교수 및 홍기대 교수가 선출되었고, 이외에 상임이사, 이사, 부장, 차장, 및 간사가 선출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c:156).

**(2) 학회지 편집규정 제정**

2011년 7월 16일에 열린 2011년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지리학회지(韓國地理學會誌)의 창간호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 횟수 및 편집위원회 조직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이 제정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c:156).

학회지 편집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장 학회지 투고,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5장 투고논문 작성지침 및 제6장 발행의 총 6개 장과 총 15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학회지 편집규정은 2012년 12월 15일, 2015년 11월 13일, 2019년 11월 30일 및 2020년 12월 5일에 각각 개정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f:172-175).

**(3) 창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결정**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2011년 12월 10일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한국지리학회, 2012c:156).

**3) 제2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1) 학회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및 로고 확정**

2011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항공사진관독실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학회의 홈페이지 주소(<http://www.koreangeography.or.kr>), 이메일 주소([geography.akg@gmail.com](mailto:geography.akg@gmail.com)) 및 로고([logo](#))가 확정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c:156-157).

**(2) 학회지 창간호 발간일 결정**

제2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를 2012년 8월 30일에 발간하기로 결정했다(한국지리학회, 2012c:157).

**2. 한국지리학회 역대 임원의 내역 및 회원수 추이**

한국지리학회 역대 임원의 내역은 회장·부회장, 부장·차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회원수 추이는 2017, 2019 및 2021년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1) 한국지리학회 역대 임원의 내역**

**(1) 역대 회장·부회장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역대 회장과 부회장을 보면, 초대에는 최원희 교수(공주대학교)가 회장의 직무를, 김창환 교수(강원대학교)·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장우석 교장(서울청담고등학교)·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홍기대 교수(광주교육대학교)가 부회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는데, 이들은 제2대까지 이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했다. 제3대에는 박철웅 교수가 회장의 직무를, 김창환 교수·장우석 교장·조성욱 교수·홍기대 교수가 부회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지 이면).

제4대와 제5대에는 김창환 교수가 회장의 직무를, 권상철 교수(제주대학교)·서종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조성욱 교수가 부회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6대에는 조성욱 교수가 회장의 직무를, 안재섭 교수(동국대학교)·이간용 교수(공주교육대학교)·장동호 교수(공주대학교)가 부회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7대에는 이상일 교수(서울대학교)가 회장의 직무를, 안재섭 교수·이훈정 선생(인현중학교)·장동호 교수가 부회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표 2).

**(2) 역대 부장·차장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역대 부장 및 차장을 보면, 제1~3대에는 부장 및 차장의 인적 구성이 동일한데, 부장의 경우 장동호 교수가 총무부장의 직무를, 이의한 교수(강원대학교)가 학술부장의 직무를, 신정엽 교수(서울대학교)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안재섭 교수가 홍보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고, 차장의 경우 정석호 연구원(공주대학교)이 총무차장의 직무를, 임은진 교수(공주대학교)가 학술차장의 직무를, 이진학 교수(서울대학교)가 편집차장의 직무를, 신영재 교수(동국대학교)가 홍보차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제4대에는 부장의 경우 장동호 교수가 총무부장의 직무를, 정성훈 교수(강원대학교)가 학술부장의 직무를, 신정엽 교수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김종연 교수(충북대학교)가 홍보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고, 차장의 경우 배선학 교수(강원대학교)가 총무차장의 직무를, 최광용 교수(제주대학교)가 학술차장의 직무를, 김영호 교수(고

**표 2. 한국지리학회 역대 회장 및 부회장**

대	재임 기간	회장	부회장
		성명(소속)	성명(소속)
1	2011. 6. 18.-2012. 6. 17.	최원희(공주대학교)	김창환(강원대학교), 박철웅(전남대학교), 장우석(서울청담고등학교), 조성욱(전북대학교), 홍기대(광주교육대학교)
2	2012. 6. 18.-2013. 6. 17.		
3	2013. 6. 18.-2015. 6. 30.	박철웅	김창환, 장우석(서울불암고등학교), 조성욱, 홍기대
4	2015. 7. 1.-2017. 6. 30.	김창환	조성욱, 권상철(제주대학교), 서종철(대구가톨릭대학교)
5	2017. 7. 1.-2018. 12. 31.		
6	2019. 1. 1.-2020. 12. 31.	조성욱	안재섭(동국대학교), 이간용(공주교육대학교), 장동호(공주대학교)
7	2021. 1. 1.-2022. 12. 31.	이상일(서울대학교)	안재섭, 이훈정(인현중학교), 장동호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려대학교)가 편집차장의 직무를, 홍일영 교수(남서울대학교)가 홍보차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제5대에는 부장의 경우 제4대의 임원들이 이어서 직무를 수행했고, 차장의 경우 김진관 교수(전남대학교)가 총무차장의 직무를, 신재열 교수(경상대학교)가 학술차장의 직무를, 성영배 교수(고려대학교)가 편집차장의 직무를, 홍일영 교수가 홍보차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6대에는 부장의 경우 류주현 교수(공주대학교)가 총무부장의 직무를, 배선학 교수가 학술부장의 직무를, 김감영 교수(경북대학교)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김종연 교수가 홍보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고, 차장의 경우 김진관 교수(전남대학교)·이재열 교수(충북대학교)가 총무차장의 직무를, 변종민 교수(서울대학교)·오정식 교수(고려대학교)가 학술차장의 직무를, 신재열 교수·한지은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편집차장의 직무를, 김영호 교수가 홍보차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제7대에는 부장의 경우 조대현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가 총무부장의 직무를, 박지훈 교수(공주대학교)가 학술부장의 직무를, 김감영 교수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임은진 교수가 홍보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

고, 차장의 경우 고민경 교수(경북대학교)·구형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송원섭 교수(전북대학교)가 총무차장의 직무를, 변종민 교수·이동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이재열 교수가 학술차장의 직무를, 김민성 교수(서울대학교)·신재열 교수·한지은 교수가 편집차장의 직무를, 김영호 교수·김진관 교수·이진희 교수(부산대학교)가 홍보차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표 3).

**(3) 역대 감사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역대 감사를 보면, 제1~2대에는 권중원 연구사(교육과학기술부)·김영호 교수가, 제3대에는 이상일 교수·김혜숙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4~5대에는 안중욱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류주현 교수가, 제6대에는 조대현 교수·최광용 교수가, 제7대에는 류연택 교수(충북대학교)·정해용 교수(강원대학교)가 감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표 4).

**(4) 역대 상임이사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역대 상임이사를 보면, 제1~2대에는 강철성 교수(충북대학교)·서태열 교수(고려대학교)·최

**표 3. 한국지리학회 역대 부장·차장**

대	재임 기간	부장	차장
		성명(소속)	성명(소속)
1	2011. 6. 18.-2012. 6. 17.	총무 장동호(공주대학교),	총무 정석호(공주대학교), 학술 임은진(공주대학교), 편집 이견학(서울대학교), 홍보 신영재(동국대학교)
2	2012. 6. 18.-2013. 6. 17.	학술 이의한(강원대학교),	
3	2013. 6. 18.-2015. 6. 30.	편집 신정엽(서울대학교), 홍보 안재섭(동국대학교)	
4	2015. 7. 1.-2017. 6. 30.	총무 장동호, 학술 정성훈(강원대학교),	총무 배선학(강원대학교), 학술 최광용(제주대학교), 편집 김영호(고려대학교), 홍보 홍일영(남서울대학교)
5	2017. 7. 1.-2018. 12. 31.	편집 신정엽, 홍보 김종연(충북대학교)	총무 김진관(전남대학교), 학술 신재열(경상대학교), 편집 성영배(고려대학교), 홍보 홍일영
6	2019. 1. 1.-2020. 12. 31.	총무 류주현(공주대학교), 학술 배선학, 편집 김감영(경북대학교), 홍보 김종연	총무 김진관·이재열(충북대학교), 학술 변종민(서울대학교)·오정식(고려대학교), 편집 신재열·한지은(한국교원대학교), 홍보 김영호
7	2021. 1. 1.-2022. 12. 31.	총무 조대현(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 박지훈(공주대학교), 편집 김감영, 홍보 임은진	총무 고민경(경북대학교)·구형모(서울시립대학교)· 송원섭(전북대학교), 학술 변종민·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이재열, 편집 김민성(서울대학교)·신재열·한지은, 홍보 김영호·김진관·이진희(부산대학교)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표 4. 한국지리학회 역대 감사**

대	재임 기간	성명(소속)
1	2011. 6. 18.-2012. 6. 17.	권중원(교육과학기술부), 김영호(고려대학교)
2	2012. 6. 18.-2013. 6. 17.	
3	2013. 6. 18.-2015. 6. 30.	이상일(서울대학교), 김혜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2015. 7. 1.-2017. 6. 30.	안중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류주현(공주대학교)
5	2017. 7. 1.-2018. 12. 31.	류주현, 안중욱
6	2019. 1. 1.-2020. 12. 31.	조대현(가톨릭관동대학교), 최광용(제주대학교)
7	2021. 1. 1.-2022. 12. 31.	류연택(충북대학교), 정해용(강원대학교)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5. 한국지리학회 역대 상임이사**

대	재임 기간	성명(소속)
1	2011. 6. 18.-2012. 6. 17.	강철성(충북대학교), 서태열(고려대학교), 최성길(공주대학교)
2	2012. 6. 18.-2013. 6. 17.	
3	2013. 6. 18.-2015. 6. 30.	강철성, 서태열, 최성길, 최원희(공주대학교)
4	2015. 7. 1.-2017. 6. 30.	강철성, 박철웅(전남대학교), 서태열, 최성길, 최원희
5	2017. 7. 1.-2018. 12. 31.	
6	2019. 1. 1.-2020. 12. 31.	김창환(강원대학교), 박철웅, 서태열, 최성길, 최원희
7	2021. 1. 1.-2022. 12. 31.	김창환, 박철웅, 서태열, 조성욱(전북대학교), 최성길, 최원희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성길 교수(공주대학교)가, 제3대에는 강철성 교수·서태열 교수·최성길 교수·최원희 교수가, 제4~5대에는 강철성 교수·박철웅 교수·서태열 교수·최성길 교수·최원희 교수가, 제6대에는 김창환 교수·박철웅 교수·서태열 교수·최성길 교수·최원희 교수가 상임이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7대에는 김창환 교수·박철웅 교수·서태열 교수·조성욱 교수·최성길 교수·최원희 교수가 상임이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5).

**(5) 역대 이사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역대 이사를 보면, 제1대에는 권동희 교수(동국대학교), 김중욱 교수(서울대학교), 김종연 교수, 김학훈 교수(청주대학교), 박승필 교수(전남대학교), 박희두 교수(서원대학교), 배선학 교수, 성영배 교수, 유흥식 교수(관동대학교), 이상일 교수, 이준선 교수(관동대학교), 장호 교수(전북대학교), 전경숙 교수(전남대학교) 등 25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제1대 이사들은 제2대에도 그대로 이어서 선임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제3대에는 김감영 교수, 김영호 교수, 이용균 교수(전남대학교), 전보애 교수(관동대학교), 최광용 교수 등 30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제4대에는 김이재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김진관 교수, 안재섭 교수, 이견학 교수, 이의한 교수 등 29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제5대에는 옥한석 교수(강원대학교), 이광률 교수(경북대학교), 이성수 교수(강원대학교), 장영진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등 36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앞표지 이면).

제6대에는 권상철 교수, 기근도 교수(경상대학교), 김다원 교수(광주교육대학교), 서종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신정엽 교수, 양병일 교수(부산교육대학교), 정성훈 교수(강원대학교), 최광희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홍기대 교수 등 41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제7대에는 김숙진 교수(건국대학교), 김오석 교수(고려대학교), 심승희 교수(청주교육대학교), 오정식 교수(동국대학교), 오정준 교수(대구대학교), 정현주 교수(서울대학교), 최재영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홍성찬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등 40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6).

표 6. 한국지리학회 역대 이사

대	재임 기간	성명(소속)
1	2011. 6. 18.- 2012. 6. 17.	권동희(동국대학교), 권영락(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남형(잠실고등학교), 김만규(공주대학교), 김종욱(서울대학교), 김중연(충북대학교), 김학훈(청주대학교), 김현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혜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류주현(공주대학교), 박세영(남한고등학교), 박승필(전남대학교), 박지훈(공주대학교), 박희두(서원대학교), 배선학(강원대학교), 성영배(고려대학교), 신용철(서원대학교), 안중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홍식(관동대학교), 이간용(공주교육대학교), 이상일(서울대학교), 이준선(관동대학교), 장호(전북대학교), 전경숙(전남대학교), 최규학(충남에내미선고등학교)(25명)
2	2012. 6. 18.- 2013. 6. 17.	
3	2013. 6. 18.- 2015. 6. 30.	권동희, 권영락, 권종원(교육부), 김감영(경북대학교), 김남형, 김만규, 김영호(고려대학교), 김종욱, 김중연, 김학훈, 김현미, 류주현, 박세영(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박승필, 박지훈, 박희두, 배선학, 성영배, 신용철, 안중욱, 유홍식, 이간용, 이용균(전남대학교), 이준선, 장호, 전경숙, 전보애(관동대학교), 최규학, 최광용(제주대학교), 홍일영(남서울대학교)(30명)
4	2015. 7. 1.- 2017. 6. 30.	권동희, 권영락, 권종원, 김감영, 김기남(소래중학교), 김남형, 김만규, 김민성(대구가톨릭대학교), 김이재(경인교육대학교), 김종욱, 김진관(전남대학교), 김학훈, 김현미, 김형남(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박세영, 박지훈, 성영배, 안재섭(동국대학교), 이간용, 이진학(서울대학교), 이상일, 이용균, 이의한(강원대학교), 임은진(공주대학교), 장우석(서울불암고등학교), 전경숙, 전보애(가톨릭관동대학교), 최규학, 최광희(국립환경과학원)(29명)
5	2017. 7. 1.- 2018. 12. 31.	권동희, 권영락, 김감영, 김규순(동북아불교미술연구원), 김기남, 김남형, 김만규, 김민성, 김영호, 김이재, 김종욱, 김학훈, 김현미, 김형남, 박세영, 박지훈, 배선학, 변종민(육군사관학교), 안재섭, 옥한석(강원대학교), 윤광성(한국환경지리연구소), 이간용, 이진학, 이광률(경북대학교), 이상일, 이성수(강원대학교), 이용균, 이의한, 임은진, 장영진(한국교원대학교), 전경숙, 전보애, 정해용(한국지오피아연구원), 최광용, 최광희, 최규학(부여고등학교)(36명)
6	2019. 1. 1.- 2020. 12. 31.	권동희, 권상철(제주대학교), 권영락, 권종원(광주한국대학교), 기근도(경상대학교), 김규순, 김기남(동탄국제고등학교), 김남형,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김만규, 김민성(부산대학교), 김이재, 김학훈, 김현미, 김형남, 김혜숙, 박세영, 박지훈, 서종철(대구가톨릭대학교), 성영배, 신정엽(서울대학교), 안중욱, 양병일(부산교육대학교), 옥한석, 윤광성, 이진학, 이광률, 이상일, 이성수, 이용균, 이의한, 임은진, 장영진, 전경숙, 전보애, 정성호(공주대학교), 정성훈(강원대학교), 정해용,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홍기대(광주교육대학교), 홍일영(41명)
7	2021. 1. 1.- 2022. 12. 31.	권상철, 권영락, 기근도, 김기남, 김다원, 김만규, 김숙진(전국대학교), 김오석(고려대학교), 김익희(국토연구원), 김종근(한국부동산원), 김중연, 김현미, 김혜숙, 김효진(삼성전자), 류주현, 박용하(한국교통연구원), 배선학, 서종철(대구가톨릭대학교), 심승희(청주교육대학교), 안중욱, 양희경(서울시교육청), 오정식(동국대학교), 오정준(대구대학교), 윤옥경(청주교육대학교), 이간용, 이진학, 이광률, 이용균, 이의한, 이호욱(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장영진, 전보애, 정성훈, 정현주(서울대학교), 최광용, 최광희, 최재영(대구가톨릭대학교), 한민(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성찬(한국교원대학교), 홍일영(40명)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7. 한국지리학회 역대 고문

대	재임 기간	성명(소속)
6	2019. 1. 1.-2020. 12. 31.	강철성(충북대학교), 김종욱(서울대학교), 장호(전북대학교)
7	2021. 1. 1.-2022. 12. 31.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6) 역대 고문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고문은 제6대에 처음으로 강철성 교수·김종욱 교수·장호 교수가 위촉되었는데, 이들은 제7대에도 위촉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7).

(7) 역대 간사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역대 간사를 보면, 제1~2대에는 김성일 선생(공주대학교)이, 제3대에는 서일웅 선생(전남대학교)이, 제4대에는 박현수 선생·류형원 선생(공주대학교)이, 제5대에는 류형원 선생·이성호 선생(공주대학교)이, 제6대에는 이성호 선생·윤혜연 선생(공주대학교)이

표 8. 한국지리학회 역대 간사

대	재임 기간	성명(소속)
1	2011. 6. 18.-2012. 6. 17.	김성일(공주대학교)
2	2012. 6. 18.-2013. 6. 17.	
3	2013. 6. 18.-2015. 6. 30.	서일웅(전남대학교)
4	2015. 7. 1.-2017. 6. 30.	박현수(공주대학교), 류형원(공주대학교)
5	2017. 7. 1.-2018. 12. 31.	류형원, 이성호(공주대학교)
6	2019. 1. 1.-2020. 12. 31.	이성호, 윤혜연(공주대학교)
7	2021. 1. 1.-2022. 12. 31.	유동한(서울대학교), 김세창(서울대학교)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9. 한국지리학회 역대 윤리위원회

대	재임 기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1	2011. 6. 18.-2012. 6. 17.	조성욱 (전북대학교)	홍기대 (광주교육대학교)	강철성(충북대학교), 서태열(고려대학교), 김만규(공주대학교), 이상일(서울대학교)	이간용 (공주교육대학교)
2	2012. 6. 18.-2013. 6. 17.				
3	2013. 6. 18.-2015. 6. 30.	홍기대	김만규	강철성, 서태열, 권종원(신도림중학교), 이상일	
4	2015. 7. 1.-2017. 6. 30.				
5	2017. 7. 1.-2018. 12. 31.			강철성, 권종원(광저우한국학교), 서태열, 이상일	
6	2019. 1. 1.-2020. 12. 31.			권상철(제주대학교), 권종원, 서태열, 장영진(한국교원대학교)	
7	2021. 1. 1.-2022. 12. 31.	권상철	이의한 (강원대학교)	권정화(한국교원대학교), 서종철(대구가톨릭대학교), 이건학(서울대학교), 정성훈(강원대학교)	류주현 (공주대학교)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c:뒷표지 이면.

간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7대에는 유동한 선생·김세창 선생(서울대학교)이 간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앞표지 이면; 표 8).

**(8) 역대 윤리위원회의 내역**

학회의 연구윤리를 다루는 윤리위원회의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보면, 제1~2대에는 조성욱 교수가 위원장, 홍기대 교수가 부위원장, 강철성 교수·서태열 교수·김만규 교수(공주대학교)·이상일 교수가 위원, 이간용 교수가 간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c:뒷표지 이면).

제3~6대에는 홍기대 교수가 위원장, 김만규 교수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3~6대에 위원은 제3~4대, 제5대 및 제6대가 달랐는데, 제3~4대에는 강철성 교수·서태열 교수·권종원 선생(신도림중학교)·이상일

교수가, 제5대에는 강철성 교수·권종원 선생(광저우한국학교)·서태열 교수·이상일 교수가, 제6대에는 권상철 교수·권종원 선생·서태열 교수·장영진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위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3~6대에 간사는 제3~5대와 제6대가 서로 달랐는데, 제3~5대에 이간용 교수가, 제6대에 박지훈 교수가 각각 그 직무를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c:뒷표지 이면).

제7대에는 권상철 교수가 위원장, 이의한 교수가 부위원장, 권정화 교수(한국교원대학교)·서종철 교수·이건학 교수·정성훈 교수가 위원, 류주현 교수가 간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c:뒷표지 이면; 표 9).

특히, 홍기대 교수는 제1~2대에는 부위원장, 제3~6대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하면서 학회 연구윤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9) 역대 편집위원회의 내역**

한국지리학회지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역대 편집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및 편집위원을 보면, 제1~2대에는 박철용 교수가 편집위원장, 신정엽 교수가 편집부장, 이진학 교수가 편집차장, 김감영 교수·김영호 교수·김종연 교수·배선학 교수·임은진 교수·조성욱 교수·최광용 교수가 편집위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3대에는 조성욱 교수가 편집위원장, 신정엽 교수가 편집부장, 이진학 교수가 편집차장, 김감영 교수·김영호 교수·김종연 교수·김혜숙 연구위원·배선학 교수·이용균 교수·임은진 교수·최광용 교수·Injeong Jo 교수(Texas State Univ.)가 편집위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d: 뒷표지 이면).

제4~5대에는 권동희 교수가 편집위원장, 신정엽 교수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4~5대에는 편집차장이 달랐는데, 제4대에는 김영호 교수가, 제5대에는 성영배 교수(고려대학교)가 편집차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제4~5대의 편집위원은 같았는데, 김감영 교수·김종연 교수·김혜숙 연구위원·배선학 교수·이용균

교수·임은진 교수·최광용 교수·Injeong Jo 교수가 편집위원 직무를 수행했다. 제6대에는 이상일 교수가 편집위원장, 김감영 교수가 편집부장, 신재열 교수·한지은 교수가 편집차장, 김민성 교수(부산대학교)·김종연 교수·배선학 교수·이용균 교수·임은진 교수·최광용 교수·Injeong Jo 교수·Naoto Koiwa 교수(Hisosaki Univ.)가 편집위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d: 뒷표지 이면).

제7대에는 신정엽 교수가 편집위원장, 김감영 교수가 편집부장, 김민성 교수(서울대학교)·신재열 교수·한지은 교수가 편집차장, 구형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김찬국 교수(한국교원대학교)·배선학 교수·이용균 교수·이재열 교수·임은진 교수·최광용 교수·Injeong Jo 교수가 편집위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d: 뒷표지 이면; 표 10).

특히, 신정엽 교수는 제1~5대에 걸쳐 편집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회지를 창간하고,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2015년 1월)와 등재지(2017년 1월)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김감영 교수는 제6대를

**표 10. 한국지리학회지 역대 편집위원회**

대	재임 기간	편집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편집위원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1	2011. 6. 18.- 2012. 6. 17.	박철용 (전남대학교)	신정엽 (서울대학교)	이진학 (서울대학교)	김감영(경북대학교), 김영호(고려대학교), 김종연(충북대학교), 배선학(강원대학교), 임은진(공주대학교), 조성욱(전북대학교), 최광용(제주대학교)
2	2012. 6. 18.- 2013. 6. 17.				
3	2013. 6. 18.- 2015. 6. 30.	조성욱			
4	2015. 7. 1.- 2017. 6. 30.	권동희 (동국대학교)		김영호	김감영, 김종연, 김혜숙, 배선학, 이용균, 임은진, 최광용, Injeong Jo
5	2017. 7. 1.- 2018. 12. 31.			성영배 (고려대학교)	
6	2019. 1. 1.- 2020. 12. 31.	이상일 (서울대학교)	김감영	신재열 (경상대학교), 한지은 (한국교원대학교)	김민성(부산대학교), 김종연, 배선학, 이용균, 임은진, 최광용, Injeong Jo, Naoto Koiwa(Hisosaki Univ.)
7	2021. 1. 1.- 2022. 12. 31.	신정엽		김민성 (서울대학교), 신재열, 한지은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d: 뒷표지 이면.

거쳐 제7대 후반까지 편집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회지의 양적 및 질적 발전에 헌신적 기여를 했다.<sup>2)</sup>

## 2) 한국지리학회 회원수 추이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수는 2017년에 166명(한국지리학회, 2017), 2019년에 181명(한국지리학회 총무부 자료)이었고, 2021년 현재 217명(한국지리학회 총무부 자료)으로 증가되어 있다.

## 3. 한국지리학회 학술활동의 성과

한국지리학회 학술활동의 성과는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와 한국지리학회지 발간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의 성과는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특별·기조강연 등을 통해서 개관하고 한국지리학회지 발간의 성과는 간행 내역, 게재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등을 통해서 개관한다.

## 1)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의 성과

### (1) 학술대회 개최

#### ① 최초의 학술대회: 2011년 동계 창립기념 학술대회

한국지리학회 최초의 학술대회는 2011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및 사범대학 10동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로 열렸는데, 2건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3개의 특별분과와 4개의 일반분과가 운영되었다. 7개의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총 44편이었다. 특별강연 2건은 松本秀明 교수(東北學院大學 地域構想學科)의 “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よる巨大津波と過去津波堆積物の分布範囲”와 田村俊和 교수(立正大學 地球環境科學部)의 “日本の地理學における人工的地形改變の研究”이었다(한국지리학회, 2011d).

3개의 특별분과는 특별분과 A(한반도 제4기 남부지역·중부지역의 환경변화와 인간활동: 함안 성산산성과 조남산을 중심으로), 특별분과 B(지오파크 연구) 및 특별분과 C(지리학의 양적 방법론의 진화: 계량지리학에서 지리공간분석으로)이었고, 4개의 일반분과는 자연지리분과, 도시지리분과, 자연재해분과 및 지리교육분과이었다(한국지리학회, 2011d; 그림 2, 그림 3).



(a)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101호실에서 열린 특별강연



(b) 松本秀明 교수(東北學院大學 地域構想學科)의 특별강연



(c) 田村俊和 교수(立正大學 地球環境科學科)(좌측)의 특별강연 및 최성길 교수(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우측)의 통역



(d) 특별강연 후의 기념촬영

**그림 2** 한국지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2011년 동계)의 특별강연 및 기념촬영

출처 : 한국지리학회, <http://www.koreangeography.or.kr>.



**그림 3.** 한국지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2011년 동계) 발표자료집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d: 발표자료.

**② 2012년 하계 이후의 학술대회**

2012년 하계 이후 학술대회는 매년 춘계(하계) 및 추계(동계)에 서울과 지방에서 열렸는데, 2011년 동계 학술대회 이래 2021년 추계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총 19회에 걸쳐 열렸다. 2011년 이래 학술대회가 열린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의 9개교이다. 2013년 추계 학술대회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2020년 추계, 2021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는 Covid-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표 11).

**(2)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① 논문의 분야 및 주제 분류 기준**

2011-2021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기석·김영현(1993)이 편저한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에서 적용한

**표 11.**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개최 내역(2011-2021년)

개최 시기		개최 장소
년월일	계별	
2011. 12. 10.	동계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사범대학 10동
2012. 5. 12.	하계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백제교육문화관
2012. 12. 15.	동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라이시움
2013. 6. 8.	춘계	전북대학교
2013. 11. 2.	추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2014. 11. 15.	추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운초우선교육관
2015. 5. 30.	하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11. 13.	추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2016. 5. 28.	춘계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10-1동)
2016. 11. 19.	추계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백제교육문화관
2017. 5. 20.	춘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운초우선교육관
2017. 12. 2.	추계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8. 5. 19.	춘계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2018. 12. 1.	추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2019. 5. 18.	춘계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2019. 11. 30.	추계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2020. 12. 5.	추계	비대면 온라인 개최
2021. 5. 29.	춘계	비대면 온라인 개최
2021. 12. 4.	추계	비대면 온라인 개최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 2014년 춘계(하계) 및 2020년 춘계 학술대회는 관련 자료의 부재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명임. 2020년 춘계 학술대회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 11월 2일 추계 학술대회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함.

‘논문 분야 및 주제 분류’ 방법을 원용하였다.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 및 주제 분류 방법은 5개 분야의 중분류와 37개 소분류 체계를 적용한 것이며, 학문적 분류라기보다는 분류 편의상 적용한 것이다(이기석·김영현, 1993: 목록을 펴내면서). 이기석·김영현(1993)에 의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분류 중 논문의 분야 분류는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지리교육’ 및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의 5개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시 각각 여러 개의 주제들로 분류되어 있다.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별 주제 분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분야는 서지류, 지리학사·방법론 및 전기류의 3개 주제로, ‘자연지리학’ 분야는 자연지리학 일반, 지형학, 기후학, 생물지리학 등 6개 주제로, ‘인문지리학’ 분야는 인문지리학 일반, 문화·역사지리학, 인구지리학,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리학 포함) 등 12개 주제로, ‘지리교육’ 분야는 지리교육학 일반, 지리교육과정, 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함) 등 5개 주제로, 그리고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 분야는 지도학,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등 11개 주제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표 12).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구성

2011년 12월 동계학술대회부터 2021년 12월 추계학술대회까지 열린 총 18회에 걸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총 528편이었는데<sup>3)</sup>, 우선 이들의 분야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1위 인문지리학(202편, 38.3%), 2위 자연지리학(144편, 27.3%), 3위 지리교육(103편, 19.5%), 4위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73편, 13.8%), 5위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6편, 1.1%)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표 13).

③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

2011년 12월 동계학술대회부터 2021년 12월 추계학술대회까지 열린 총 18회에 걸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총 528편의 논문들의 주제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주제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상위 순위의 경우 1위 지형학(115편, 21.8%), 2위 문화·역사지리학(70편, 13.3%), 3위 지리교육학 일반(48편, 9.1%), 4위 도시지리학(43편, 8.1%), 5위 지리교수·학습방법론(지리교재연구 포함)(42편, 8.0%) 등으로 나타나고, 하위 순위의 경우 발표 논문이 1편 이상 있는 것에 한정해서 보면, 25위

표 12. 「한국지리논문목록:1986-1990」의 논문 분야·주제 분류

분야	주제
I.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1. 서지류, 2. 지리학사·방법론, 3. 전기류
II. 자연지리학	4. 자연지리학 일반, 5. 지형학, 6. 기후학, 7. 생물지리학, 8. 토양지리학, 9.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III. 인문지리학	10. 인문지리학 일반, 11. 문화·역사지리학, 12. 인구지리학, 13.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리학 포함), 14. 정치지리학(선거지리학 포함), 15. 촌락지리학, 16. 도시지리학, 17. 경제지리학 일반, 18. 농업지리학(낙농, 임, 어업 포함), 19. 공업지리학, 20. 상업·유통지리학, 21. 교통지리학
IV. 지리교육	22. 지리교육학 일반, 23. 지리교육과정, 24. 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함), 25. 환경교육, 26. 사회과교육
V.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	27. 지도학, 28. 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29. 지리정보론, 30. 지지, 지역연구, 31. 지역개발, 지역계획, 32. 계량지리학, 33. 관광지리학, 34. 환경지리학, 35. 답사보고, 36. 지명, 37. 기타

출처 : 이기석·김영현, 1993.

표 13.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구성(2011. 12.-2021. 12.)

분야	수(편)	비율(%)	순위	분야	수(편)	비율(%)	순위
인문지리학	202	38.3	1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	73	13.8	4
자연지리학	144	27.3	2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6	1.1	5
지리교육	103	19.5	3	계	528	100	-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전기류/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농업지리학(낙농·임·어업 포함)/ 교통지리학 / 사회과교육/ 환경지리학 (각 3편, 0.6%), 31위 지리학사·방법론/ 지명(각 2편, 0.4%), 33위 서지류(1편, 0.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표 논문이 전혀 없는 주제도 있는데,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및 답사보고가 그것들이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표 14).

**(3) 학술대회에서의 특별·기조강연 개최**

학술대회에서의 특별·기조강연은 2011년 동계, 2012년 하계, 2013년 추계, 2018년 춘계·추계, 2019년 춘계·추계 및 2021년 춘계·추계 학술대회에 각각 개최되었다. 특별·기조강연의 강사로는 국외의 경우 松本秀明 교수(東北學院大學), 田村俊和 교수(立正大學), Joseph P. Stoltman 교수(Western Michigan Univ.), Narendra Raj Khannal 교수(Tribhuvan Univ.), Heejun Chang 교수(Portland State Univ.)가 있었고, 국내의 경우 김만규 교수(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고광민 연구원(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장호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준선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송언근 교수(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가 있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표 15).

**(4) 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 발표 및 학술답사 개최**  
 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 발표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있었는데, 배선학(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Heejun Chang 교수(Dep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의 “도시 확장과 수해 피해의 상관관계 분석” 등 총 8건이 전시되었다. 학술답사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유일하게 있었는데,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안내로 이루어진 ‘덕진연못 답사’가 그것이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2) 한국지리학회지 발간의 성과**

**(1) 한국지리학회지의 발간**

**①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의 발간: 2012년 8월**

한국지리학회의 학회지는 학회 창립 14개 월 후인 2012년 8월에 창간되었는데, 공식 명칭은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로 하였으며, 초대 편집위원장은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편집부장은 신정엽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였다. 이들과 편집위원들은 학회지의 명칭, 표지 디자인, 국제표준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편집 형식, 연구윤리규정, 편집규정 등을 구비하는데 크게

**표 14.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2011. 12.-2021. 12.)**

순위	주제	수(편)	비율(%)	순위	주제	수(편)	비율(%)	순위
1	지형학	115	21.8	1	공업지리학	5	0.9	19
2	문화·역사지리학	70	13.3	2	지지, 지역연구	5	0.9	19
3	지리교육학 일반	48	9.1	3	지리교육과정	4	0.8	22
4	도시지리학	43	8.1	4	지도학	4	0.8	22
5	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함)	42	8.0	5	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4	0.8	22
6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리학 포함)	29	5.5	6	전기류	3	0.6	25
7	기후학	21	4.0	7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3	0.6	25
8	기타	37	7.0	8	농업지리학(낙농·임·어업 포함)	3	0.6	25
9	인문지리학 일반	14	2.7	9	교통지리학	3	0.6	25
9	경제지리학 일반	14	2.7	9	사회과교육	3	0.6	25
11	관광지리학	13	2.5	11	환경지리학	3	0.6	25
12	지역개발, 지역계획	12	2.3	12	지리학사·방법론	2	0.4	31
13	지리정보론	9	1.7	13	지명	2	0.4	31
141	정치지리학(선거지리학 포함)	8	1.5	14	서지류	1	0.2	33
15	총락지리학	7	1.3	15	자연지리학 일반	0	0	34
16	인구지리학	6	1.1	16	토양지리학	0	0	34
16	환경교육	6	1.1	16	상업·유통지리학	0	0	34
16	계량지리학	6	1.1	16	답사보고	0	0	34
19	생물지리학	5	0.9	19	계	528	100	-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표 15.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특별·기초강연 개최 내역

시기	장소	강사		주제
		성명	소속	
2011 동계	서울대학교	松本秀明	東北學院大學 地域構想學科	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よる巨大津波と過去津波堆積物の分布範圍
		田村俊和	立正大學 地球環境科學部	日本の地理學における人工的地形改變の研究
2012 하계	공주대학교	김만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GIS의 군사적 활용
2013 추계	진주교육대학교	Joseph P. Stoltman	Western Michigan Univ.	Geographic Education for a Harmonious Global Society
		Narendra Raj Khannal	Tribhuvan Univ.	Flood and Landslide Hazards in Nepal
2018 춘계	제주대학교	고광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제주도의 동과 서
2018 추계	강원대학교	Heejun Chang	Dep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	Geography in a New Er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Geographers
2019 춘계	공주대학교	장호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제4기 편년의 지표지형으로서의 단구지형 연구
2019 추계	전북대학교	이준선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의 회고와 제언
2021 춘계	비대면 온라인	송언근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과내용학 전공자 입장에서 바라본 지리교육의 현재와 미래: 지식의 자기화를 중심으로
2021 추계	비대면 온라인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와 과제 모색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기여하였다(한국지리학회, 2012c:156- 157).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제1권 제1호)의 앞에는 부록으로 학회장의 ‘창간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에는 한국지리학회지의 창간 목적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었다(한국지리학회, 2012b:앞부록).

“이번에 창간되는 한국지리학회지는 한국지리학회와 기존 지리학과 지리교육 학회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당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적 변혁들을 주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지리학회지는 외적으로는 지리학과 관련 학문 간의 연계와 균형, 그리고 내적으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지리학 본질론과 지리학 방법론 간의 연계와 균형을 도모할 것입니다.”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에는 서태열 교수(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제하의 논문을 비롯해서 총 11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논문 총 11편의 주제는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지형학 2편, 인문지리학 일반 1편, 문화·역사지리학 2편, 도시지리학 1편, 지리교육학 일반 1편, 지리교육과정 3편 및 지지, 지역연구 1편으로



그림 4.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2012. 8.)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a:앞표지.

구성되었다.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의 분량은 논문과 부록(2011년 한국지리학회 소식, 2012년 한국지리학회 소식, 한국지리학회 정관, 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등)을 합쳐서 총 175쪽에 이르렀다(한국지리학회, 2012a:앞표지; 그림 4).

**② 한국지리학회지의 전체 간행 내역**

한국지리학회지의 전체 간행 내역을 보면, 제1권부터 제4권까지는 매년 2개 호로 간행되었고, 제5권부터는 매년 3개 호가 간행되어 2021년 11월 현재 통권 제25호가 간행되었고, 총 4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지리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된 것은 2015년 1월이었고, 같은 재단의 등재지가 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a). 한국지리학회지 제9권 제2호부터는 제1권 제1호부터 부여된 기존의 국제표준간행물번호(ISSN)인 'ISSN 2287-4739(Print)' 이외에 'ISSN 2733-8991[Online]'이 부여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a:앞표지).

**(2)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①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야 구성**

한국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12년 8월)부터 제10권 제2호(2021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25개 책에 게재된 논문 수는 총 248편이었는데, 우선 이들의 분야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1위 인문지리학(115편, 46.4%), 2위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45편, 18.1%), 3위 자연지리학(43편, 17.3%), 4위 지리교육(42편, 16.9%), 5위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3편, 1.2%)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한국지리학회, 2012-2021a:앞표지), 이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구성과는 일부 상이하다(표 16).

**②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

한국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12년 8월)부터 제10권 제2호(2021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25개 책에 게재된 총 248편 논문들의 주제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주제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상위 순위의 경우 1위 문화·역사지리학(35편, 14.1%), 2위 지형학(29편, 11.7%), 3위 도시지리학(27편, 10.9%), 4위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리학 포함)/ 지리교수학습방법(지

리교재연구 포함)(각 16편, 6.5%) 등으로 나타나고, 하위 순위의 경우 게재 논문이 1편 이상 있는 것에 한정해서 보면, 21위 지리학사·방법론/ 인구지리학/ 공업지리학/ 지명(각 2편, 0.8%), 25위 전기류/ 지도학(각 1편, 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a:앞표지).

또한, 발표 논문이 전혀 없는 주제도 있는데, 서지류,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환경교육, 사회과교육,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및 답사보고가 그것들이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a:앞표지). 이러한 학회지 주제 구성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과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다(표 17).

**III. 한국지리학회의 과제**

**1. 학술활동 측면의 과제**

앞에서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경과를 개관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가 활성화된 분야 및 주제'와 '연구가 부진하거나 소멸된 분야 및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활성화된 연구' 및 '부진 및 소멸 연구'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최근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연구'의 분야 및 주제 등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기존의 활성화된 연구에서 지리학의 본질 추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술 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기존의 활성화된 연구주제를 상위 순위 일부에 한정해서 보면, 문화·역사지리학, 지형학, 도시지리학, 사회지리학, 지리교수·학습방법, 지리교육학 일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지리학

**표 16.**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야 구성(2012. 8.-2021. 8.)

순위	분야	수(편)	비율(%)	순위	분야	수(편)	비율(%)
1	인문지리학	115	46.4	4	지리교육	42	16.9
2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	45	18.1	5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3	1.2
3	자연지리학	43	17.3	-	계	248	100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a:앞표지.

표 17.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2012. 8.-2021. 8.)

순위	주제	수(편)	비율(%)	순위	주제	수(편)	비율(%)	순위
1	문화·역사지리학	35	14.1	1	계량지리학	3	1.2	18
2	지형학	29	11.7	2	지리학사·방법론	2	0.8	21
3	도시지리학	27	10.9	3	인구지리학	2	0.8	21
4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리학 포함)	16	6.5	4	공업지리학	2	0.8	21
4	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함)	16	6.5	4	지명	2	0.8	21
6	지리교육학 일반	15	6.0	6	전기류	1	0.4	25
7	인문지리학 일반	13	5.2	7	지도학	1	0.4	25
7	환경지리학	13	5.2	7	서지류	0	0	27
9	기후학	11	4.4	9	지연지리학 일반	0	0	27
9	지리교육과정	11	4.4	9	토양지리학	0	0	27
11	지역개발, 지역계획	9	3.6	11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0	0	27
12	정치지리학(선거지리학 포함)	8	3.2	12	상업·유통지리학	0	0	27
13	지지, 지역연구	6	2.4	13	교통지리학	0	0	27
131	관광지리학	6	2.4	13	환경교육	0	0	27
15	경제지리학 일반	5	2.0	15	사회과교육	0	0	27
15	기타	5	2.0	15	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0	0	27
17	촌락지리학	4	1.6	17	지리정보론	0	0	27
18	생물지리학	3	1.2	18	답사보고	0	0	27
18	농업지리학(낙농·임·어업 포함)	3	1.2	18	계	248	100	-

출처 : 한국지리학회, 2012-2021a:앞표지.

의 본질(nature)'을 지나치게 이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리학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으로서 '지리학의 본질'은 '지역, 공간 및 환경 연구'이고, 그의 요체는 '지역의 보편성(법칙성)과 특수성(고유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평상시 지리학 연구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는 '지리학의 본질'을 충실히 추구하는 것이다.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의 본질 이탈'은 연구주제의 심화를 위한 유관 학문들과의 학제적 접근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지리학 연구에서 연구주제의 심화를 위한 학제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지리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리학 주도'(지리학 중심의) 학제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리학의 본질을 망각한채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지리학과 유관 학문들과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들어서 지리학 유관 학문들이 '지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대거 차용하고 있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론이나 도시계획학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서 도시지리학의 전유

물로 간주되는 도시구조론과 도시체계론을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의 정체성으로서 지리학의 본질로 간주되는 지역·공간·환경 연구를 추구할 때 비로서 지리학이 정상과학(定常科學, normal science)으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의 복이원성'(復二元性, double dualism)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리학의 복이원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리학사, 지리철학, 지리사상, 지리학방법론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리학의 복이원성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은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의 관계구조에서 계통지리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지리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지역지리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통지리학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는 순환과정을 거쳐서, 결국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간에 균형적 성장과 선순환적 상호상승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리학 연구의 기본구조에 의거하지 않은채 지리학 유관 학문들과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지리학 본질의 이탈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학의 일부 하위 주제들의 연구가 부진하거나 소멸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은 앞에서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을 분석하여 드러난 바 있는데, 학술대회 발표 논문 주제 구성에서 지리학 하위 주제들의 일부 연구가 부진하거나(서지류, 지명, 지리학사·방법론, 환경지리학 등의 경우) 소멸된(전무한)(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답사보고 등의 경우) 것이 그 사례이고,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지리학 하위 주제들의 일부 연구가 부진하거나(지도학, 전기류, 지명, 공업지리학, 인구지리학 등의 경우) 소멸된(서지류,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수문학,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환경교육, 사회과교육,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답사보고 등의 경우) 것이 그 사례이다.

더 나아가서, 지리학의 본질 추구는 지리교육학 연구 및 지리교육활동(지리교육과정 내용구성 및 지리교수·학습·평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지리학 연구의 결과로 추출(선정, 정립)된 '지리개념'과 '지리연구방법'을 교수학적(教授學的)으로 각각 변환한 '지리기본개념' 및 '지리탐구방법'을 지리교육학 연구와 지리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간의 연계는 양자 간에 지리(기본)개념과 지리연구(탐구)방법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비로서 가능하고, 특히 지리교육(학)의 성공적 수행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기존의 활성화된 연구'는 지리학의 본질 추구에 더욱 충실하면서 지리학 유관 학문들과의 학제적 접근 내지 융합적 접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2) 기존의 부진 및 소멸 연구의 활성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연구가 부진한 것(전무한 것을 제외한 하위 10위의 것)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전기류,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농업지리학(낙농·임·어업 포함), 교통지리학, 사회과교육, 환경지리학, 지리학사·방법론, 지명, 서지류 등이 있고, 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촌락지리학,

생물지리학, 농업지리학(낙농·임·어업 포함), 계량지리학, 지리학사·방법론, 인구지리학, 공업지리학, 지명, 전기류, 지도학 등이 있다.

또한, 연구가 전무하여 사실상 소멸한 것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답사보고 등이 있고, 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서지류,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환경교육, 사회과교육,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답사보고 등이 있다.

요컨대,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드러난 부진 및 소멸 주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 (1) 지도학, 지리학사·방법론, 계량지리학,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연구의 과제

기존의 부진 및 소멸 연구들 중 지도학, 지리학사·방법론, 계량지리학, 촌락지리학, 농업지리학 등의 과제를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도학

지도학의 경우 지도투영법(projection method)을 중심으로 한 수학적 지도학, 기초통계·항공사진·원격탐사를 통한 자료 획득, 통계지도 제작, 지도 디자인과 지도 제작(컴퓨터 지도 제작 포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수학적 지도학 차원의 지도투영법 연구가 중요하다.

#### ② 지리학사·방법론

지리학사·방법론의 경우 특히 지리학사 부분은 연구가 극히 부진한데, 지리학사는 지리사상, 지리철학 등과 연계되어 좁게는 지리학방법론에, 넓게는 인문지리학 및 자연지리학 전반의 기초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 본질 인식 및 추구의 선행적 기반이 된다.

#### ③ 계량지리학

계량지리학은 과학적 지리학 연구의 핵심이다. 이러한 계량지리학 연구는 기존의 '지리통계학'(地理統計學) 차원을 넘어서 '지리학 양적 방법론의 진화 차원에서 '지리공간분석론'(地理空間分析論, geo-spatial analysis)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④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지리학에서 ‘도시와 촌락’은 ‘이원적 인문지역’(二元的 人文地域)으로서 양자는 상호의존적이므로, 양자의 연구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촌락과 그의 기반기능으로서의 농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즉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연구는 부진하거나 소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특히, 한국 촌락지리학의 경우 역사시대 촌락의 발달(발생과 진화) 연구가 시급하다. 즉, 현대촌락의 원형으로서 근대촌락(주로 일제강점기 촌락), 그리고 근대촌락의 원형으로서 근대이전촌락에 대한 연구가 각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촌락지리학 연구와 농업의 지리적(공간적) 전개에 대한 연구로서 농업지리학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지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촌락지리학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

#### (2) ‘지지, 지역연구’ 및 ‘기후학’ 연구의 과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연구 부진 및 소멸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활성화된 연구주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존의 주제로서 ‘지지, 지역연구’ 및 ‘기후학’이 있는데, 이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지, 지역연구

지지, 지역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의 본질 추구하고 관련하여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의 균형적 성장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중요하고, 동시에 지리교육의 주요한 기초 및 기반으로서 지역지리의 출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지지, 지역연구는 지역계층(지역수준)별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지, 지역연구에서 지역계층 중 하위계층에 해당되는 기초지역(동·리 및 자연마을 수준의 지역)의 연구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역은 인간 일상생활의 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 지지, 지역연구에서 초·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지, 지역연구는 한국지리와 세

계지리의 관계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지리의 세계지리적(세계지리 차원의) 보편성(일반성) 및 특수성(차이성)을 파악하는데까지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지, 지역연구의 양상은 학교 지리교육의 지역지리 수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세계지리가 제외된 국토지리 중심의 지역지리수업’과 ‘국토지리가 제외된 세계지리 중심의 지역지리수업’ 모두 비정상적이다.

#### ② 기후학

기후학 연구는 자연지리학, 특히 기후지형학, 생물지리학 연구의 기초가 되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학 연구는 대기과학(大氣科學)의 이론과 방법에 기반한 동기후학(動氣候學)과 미기후학(微氣候學)에 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없이 자연지리학에 대한 원만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3) 고고지리학 연구의 과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부진한 연구 주제로서 최근 새로이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고고지리학(考古地理學, archeological geography)의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과제를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고지리학

고고지리학은 주로 유적·유물 등에 의해서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지역적 특질(地域的 特質)을 해석·복원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고고지리학은 지리학 내의 자연지리학(지형학, 기후학, 생물지리학·화분분석등), 인문지리학(문화·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등) 및 GIS가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지리학과 비지리학(非地理學: 지질학, 생물학,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있어서 지리학에서 학제적(융합적) 접근의 가능성이 큰 주제 중의 하나이다.

#### 3) 최근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연구의 분야 및 주제 모색

기존 사회변화의 주요 동인(動因)이었던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및 인본화에 이어 최근 새로운 사회변화의 동인에 의해 급속히 그리고 대규모로 등장하고 있는 다

음과 같은 분야 및 주제를 지리학과 지리교육에 신속히 도입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정보기술 및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른 빅데이터 (Big Data)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적 질서로서 경제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의 특징으로 자리잡은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한 뉴노멀(New Normal) 연구 / 산업화, 도시화 등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연구 / 사회를 읽는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네트워크 접근, 특히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과 자연-사회 연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지리(geography of networks)의 연구 / ‘네트워크의 현대 메트로폴리스 형성 방식’(How Networks are Shaping the Modern Metropolis)과 관련한 연계도시(連繫都市, connected city)의 연구”

또한, 위와 같은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 곧 시행 예정인 개정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이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 및 지원도 필요하다.

#### 4) 종합적 과제

‘주요한 인간 존재의 기반으로서 촌락과 농업의 지리적 접근에 관한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연구’, ‘지리학 본질 추구와 지리교육과정의 원천으로서 지지, 지역연구’,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간의 통합(융합) 및 지리학과 비지리학 간의 통합(융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고지리학 연구’ 등이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계통지리학, 지역지리학 및 지리교육 간에 균형적 성장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부분적으로는 계통지리학 내에서 자연지리학 및 인문지리학 간, 지역지리학 내에서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간, 지리교육 내에서 지리교육학 및 학교지리 간에 각각 균형적 성장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 2. 사회봉사 측면의 과제

지난 10년간 한국지리학회가 학회의 기본적 여건으로서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중심으로 한 학술활

동에 진력하느라 학회의 사회봉사는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차후에는 지난 10년간 이룩한 학술활동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는 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자문 및 연구,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사회 및 지리 교육과정 개정 참여, 사회 및 지리 교과서 편찬 및 검정예의 기여, 초·중등학교 사회 및 지리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 개선예의 기여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 3. 기타 측면의 과제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이룩한 성과의 기반 위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회의 수단법인화를 추진하고, 회원수 증대, 기금 형태의 재정 확보, 국제적 지리학회 및 주요국 지리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등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IV. 요약 및 제언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과를 개관하고, 학회의 차후 과제를 모색했다. 그간의 경과는 학회의 창립 과정, 역대 임원의 내역 및 회원수 추이, 학술활동 성과 등을 개관했고, 학회의 차후 과제는 학술활동, 사회봉사 등의 측면에서 모색했다.

한국지리학회가 앞에서 개진된 여러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2011년 한국지리학회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학회 창립 목적’으로서 “예고 시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글로벌 지식 기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리학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강한 미래를 가져올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한국지리학회, 2011b:4)에 성공하고, 2012년 한국지리학회지 창간사에서 밝힌 ‘학회지의 지향점’으로서 “외적으로는 지리학과 관련 학문 간의 연계와 균형, 그리고 내적으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지리학 본질론과 지리학 방법론 간의 연계와 균형의 도모”(한국지리학회, 2012b:앞부록)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현재의 한국지리학회가 홈페이지(<http://www.koreangeography.or.kr>)에서 표방하고 있는 2대 슬로건인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지리학회와 ‘세계적 수준의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한국지리학회는 한국 지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치 무모한 일들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지리학회는 이후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지리학회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註

- 1) 2011년 6월 18일에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운초우 선교육관 204호실에서 열린 가칭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당시의 관련 사진을 본고에 게재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수년전부터 여러 경로로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끝내 본고에 게재하지 못하여 못내 아쉽다. 이 귀중한 사진이 차후에라도 발견되기를 고대한다.
- 2) 김감영 교수(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지리학회의 편집부장직을 수행해 오던 중 애석하게도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새벽 지병으로 타계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지리학회와 한국지리학회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면서 삼가 명복을 빈다.
- 3) 2011년 동계 이래 2021년 추계에 이르기까지 개최된 학술대회는 총 19회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2013년 춘계 학술대회의 경우 관련자료(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의 부재로 인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분석은 2013년 춘계 학술대회를 제외한 총 18회 528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이기석·김영현 1993,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 서울: 백산출판사.

한국지리학회, 2011a,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한국지리학회, 2011b, “한국지리학회 창립선언문”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3-5.

한국지리학회, 2011c, “발기인 공동대표 및 명단” 한국지리

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6.

한국지리학회, 2011d,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지리학회, 2011-2021,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지리학회, 2012a, “논문 목록” 한국지리학회지, 1(1), 앞표지.

한국지리학회, 2012b, “창간사” 한국지리학회지, 1(1), 앞부록.

한국지리학회, 2012c, “2011년 한국지리학회 소식” 한국지리학회지, 1(1), 153-160.

한국지리학회, 2012d, “한국지리학회정관” 한국지리학회지, 1(1), 166-168.

한국지리학회, 2012e, “한국지리학회정 연구윤리규정” 한국지리학회지, 1(1), 169-171.

한국지리학회, 2012f, “한국지리학회정 연구윤리규정” 한국지리학회지, 1(1), 172-175.

한국지리학회, 2012-2021a, “논문 목록” 한국지리학회지, 1(1)-10(2), 앞표지.

한국지리학회, 2012-2021b, “한국지리학회 임원” 한국지리학회지, 1(1)-10(2), 앞표지 이면.

한국지리학회, 2012-2021c, “윤리위원회” 한국지리학회지, 1(1)-10(2), 뒷표지 이면.

한국지리학회, 2012-2021d, “편집위원회” 한국지리학회지, 1(1)-10(2), 뒷표지 이면.

한국지리학회, 2017, 「한국지리학회 2017 회원명부」.

한국지리학회, <http://www.koreangeography.or.kr>

교신 : 최원희,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wvh@kongju.ac.kr](mailto:cwvh@kongju.ac.kr))

Correspondence : Wonhoe Choi,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h@kongju.ac.kr](mailto:cwh@kongju.ac.kr))

투고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_\_\_\_\_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7일